

3. 경추의 골육종 Osteogenic sarcoma of cervical vertebra

이응석, 조원보, 김인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해부병리과

Osteogenic sarcoma가 척추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할 확률은 전체 골육종 중 1.5% 정도로 드물다. 연자들은 횡문 근육종의 의진하에 후경부 종괴를 세침흡입검사하였으나 검사 결과 골육종으로 진단되었던 예를 경험하여, 드물지만 osteogenic sarcoma도 경부 종괴의 감별진단에 고려되어야 할 질환 중 하나라고 사료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36세된 남자 환자의 후경부에 3개월전부터 종괴가 생기고 왼쪽 팔에 근육쇠약이 동반되어 내원하였다. 이학적 소견상 종괴는 딱딱하고 고형성이며 압통이 있었다. 이 종괴는 MRI 검사상 T1 Weight image에서 저 신호강도를 보이는 13×13 cm 크기로 제 1, 2 경추를 파괴하고 있으며 종괴 내부에 소수의 석회화가 관찰되었다. 세침흡입 검사상 호산성의 세포질을 가진 비교적 크고 다양한 모양의 세포들이 군집을 이루거나, 개개로 흩어져 있었고, 이러한 세포의 군집은 경계가 불분명하며, 그 주위를 짙은 호산성의 비정형물질(amorphous material)이 둘러 싸고 있었다.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첫째가 크고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세포로, 세포질은 풍부하고 호산성을 띠며, 핵은 불규칙하고 과염색성이며, 염색질은 조잡한 파렴성이고 핵소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두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세포로는 중등도 크기의 원형내지 타원형의 세포로, 세포질은 호산성을 띠며, 핵은 원형 내지 타원형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과염색성이나 핵소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함께 실시한 조직절편 검사에서 종양세포들이 골기질(osteoid)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여 osteogenic sarcoma로 진단하였다.

4. 신경절 아세포종의 세포학적 특징 Cytologic characteristics of Ganglioneuroblastoma

이응석, 조현이, 김인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해부병리과

후종격동에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것은 신경 유래 종양으로 어린이 에서는 sympathetic nervous system 기원 종양이 많고, 어른에서는 neural sheath 기원 종양이 흔하다. 연자들은 최근 세침흡입검사로 진단한 후종격의 Ganglioneuroblastoma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2세된 남아로서 15일 전부터 시작된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흉부촬영상 우연히 우측 주기관지를 앞쪽으로 밀고 있는 후종격의 종괴가 발견되었으며, 흉부 단층 촬영상 8cm 직경의 저음영의 둥근 종괴로,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고 그 내부에 군데군데 석회화가 관찰되었다. 세침흡입 도말 검사상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주된 세포는 크고 풍부한 분홍색 세포질을 가진 세포로, 핵은 둥글며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핵소체는 과염색성이며 한개 또는 여러개의 핵소체를 갖고

있었다.

다른 세포들은 크기가 비교적 작았으나, 림파구보다는 크고, 세포경계가 불분명하며 비교적 적은 세포질을 가졌으며, 이러한 세포들은 개개로 흩어져 있거나 여러개가 모여 세포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세포들 사이에는 가는 섬유성 물질이 둘러싸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적출된 종괴는 8 cm 직경의 둥근 낭종으로 1 cm 가량의 두꺼운 벽을 가졌으며 갈색의 장액성 물질로 차 있었다. 조직학적으로 이 종양은 imperfect 형의 Ganglioneuroblastoma 에 해당하였다.